# 佛事 위해 재산 처분한 베트남 스님

## '청빈 실천' 도안 람 탄 스님
## 불교 귀의 여정 '화제'

베스트셀러 〈페라리를 판 수도승(The Monk Who Sold His Ferrari, 로빈 사르마 作)〉은 자기성찰을 통해 서서히 수도승으로 변모해가는 주인공 줄리안 맨틀 이야기다. 줄리안은 세속서 벗어나기 위해 자신의 '페라리' 스포츠카를 판다. 현대 종교계서 이러한 청빈함을 몸소 실천하는 승려가 몇이나 될까.

이 가운데 베트남의 도안 람 탄(Doan Lam Tan) 스님이 소설 속 주인공처럼 스님이 되기 위해 모든 부귀를 떨쳐버려 귀감이 되고 있다.

영자 일간지 'The Times of India(이하 TOI)'는 11월 27일(현지시간) 인도 북부 우타르푸라데시 주(州) 사르나트에 위치한 시발리 베트남 사원 주지 도안 람 탄 스님 이야기를 소개했다. 베트남 출신 탄 스님이 인도로 건너와 스님이 되기까지 과정은 한 편의 소설 같다. 탄 스님은 베트남서 평범하게 살던 중한 스님을 만난다.

"그 스님이 제게 한 달에 1달러 보수를 받는 일을 맡아 달라 부탁했어요. 하지만 생활비로 충분치 않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우울함이 밀려왔죠. 그러다 어느 날 한 스님이 꿈에 나왔습니다."

탄 스님은 꿈에서 어느 스님 옆에 서 있었는데, 몸을 휘감는 부처님의 기운을



도안 람 탄 스님이 사찰 구조물을 직접 수리하고 있다. 사진출처=TOI

**한 스님, '1달러짜리 일' 부탁**
**거절 후 불안 · 우울함 휩싸여**
**"인도로 가라" 꿈 속 스님 말에**
**사르나트 이주 후 사원 건립**
**무소유 실천… 주민들에 귀감**

느꼈다고 한다. 그 스님은 탄 스님에게 "네가 태어난 목적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회의 고리에 걸렸다"며 "인도에 가라"고 말했다. 이에 3개 불교학 박사 학위를 수료했던 탄 스님은 베트남서 생활을 정리하고 인도 사르나트로 향했다. 재산 뿐 아니라 자동차, 소지품 등 모두 처분해 인도로 가는 자금을 마련했다.

도착하자마자 탄 스님은 과거 자신에게 '1달러짜리 일'을 부탁했던 스님을 만났다. 그 스님은 탄 스님에게 사원을 건립할 것을 권유했고, 탄 스님은 2년 동안 베트남을 왕복하며 자금을 마련했다. 7~8차례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소셜미디어나 인터넷 등의 매체를 활용해 자금을 모으는 투자 방식)을 실시했고, 마침내 2014년 12월 12일 '시발리 베트남 사원'이 완공됐다.

사원엔 인도에 불교를 널리 퍼트린 아쇼카왕의 조형물을 비롯해 부처님의 각성 과정을 담은 불상 등이 설치됐다. 특히 분홍색 사암으로 지은 대들보 덕분에 '장미 사원'이라 불리며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프라틱 히라 우타르푸라데시 관광안내원조합 대표는 "'장미 사원'은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다. 사르나트 시내서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아직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미 방문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광경에 어안이 벙벙해지곤 한다"고 밝혔다.

관광객 아비섹 라탄 씨도 "이곳은 인도서 가장 아름다운 불상이 있는 곳 중 하나"라고 감탄했다.

특히 탄 스님은 사원 건립 후에도 여전히 청백한 삶을 이어가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다. 현재 탄 스님의 개인 물품은 핸드폰, 자전거, 노트북 1개가 전부다. 끼니도 주민들로부터 밀가루빵 5개를 얻어 해결한다.

마을 주민 모한 씨는 "탄 스님은 요리를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매일 밀가루빵 5개를 얻는다. 대신 스님은 주민들에게 매달 20kg 밀가루를 제공한다"며 "일종의 물물교환식"이라고 웃어보였다.

前 보드리서치재단장 찬디마 스님은 "탄 스님은 존재 자체로 영감을 준다. 현지인들과 의사소통이 수월치 않아도, 주민들은 마음깊이 그를 존경한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피규어 불상, 日 여성들 사로잡다

## 실용적이고 즐길 수 있는 불교 관련품 선호





불상의 나발을 이미지화한 니트 모자 '나발 니트 캡'(사진 왼쪽).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마스킹 테이프.

일본 불교의 특징인 단가(檀家) 제도가 쇠퇴하며 신도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40대 이하 여성층에서는 오히려 불교 붐이 일어나고 있어 화제다. 11월 28일 관련 내용을 '닛케이 스타일(日經スタイル)'이 취재했다.

신도들이 제반 의례와 가족묘지 관리를 사찰에 위임하고 그 사찰에 재정적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단가제도'가 쇠퇴하자 사찰이 감소해가는 시점서, 젊은 여성층은 오히려 불교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등 불교 붐을 일으키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최근 번화가서 불상을 모티브로 유니크한 디자인의 상품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상품의 소비층은 40대 이하의 여성들이며, 이들은 인터넷을 통한 불상관람 모임이나 사찰순례 모임 등을 주도하기도 한다.

독특한 디자인의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로 알려진 펠리시모(FELISSIMO)는 올 8월, 불상의 나발(螺髮, 소라모양을 한 부처의 머리카락)을 이미지화한 니트 모자 '나발 니트 캡'을 발표했다. 이 모자는 도쿄국립박물에서 개최한 불상전시회에 맞춰 관내 매장서 판매하자 순식간에 소진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펠리시모 디자인 팀은 스님들의 의견을 참고해 상품화했다고 한다. 또한 반야심경을 그림으로 표현한 마스킹 테이프 등 일상용품도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상품을 늘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펠리시모 자체 조사에 의하면 불교상품의 주 고객층은 30~40대 여성으로, 예상보다 10배에 달하는 호응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상생활서 즐기는 불상'이라는 컨셉으로 피규어 불상을 판매하고 있는 불상 전문 매장 '이스무(イスム)'에도 많은 여성들이 주 고객층으로 방문하고 있다. 여성 고객들은 "사찰을 구경하는 기분이 든다", "조형미가 훌륭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평균가격이 8~9만엔(약80~90만원)인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다고 한다.

이처럼 젊은 여성들이 주도하는 불교 붐 현상의 핵심은 '가볍고 즐길 수 있는 불교'라고 기사는 분석한다. 60대 이상 일본 여성들은 단가제도로 인해 불교신앙 활동이 의무화 돼있어 나이가 들수록 거부감이 생기는 반면, 이들의 자식 세대인 젊은 여성들은 문화로서 부담 없이 불교를 즐기기 때문이다.

단가제도와 믿음이라는 의무감으로 사찰을 지탱하는 시대가 아닌 지금, '가벼운 불교'가 일본 여성들을 사로잡고 있다.

주성원 객원기자

# 법륜 새긴 석판 발견… 인도미술 美 '그대로'

## 11월 24일 군드라캄마 강둑서 기원후 1세기 경 제작 추정

간다라, 마투라와 더불어 고대 인도 미술의 중심지인 안드라 왕조 시대 불교 유물이 발견됐다.

인도 일간지 'HANS INDIA'는 11월 27일(현지시간) "지난 11월 24일 프라카삼 주 베남팔리 마을 근처 군드라캄마 강둑서 기원후 1세기 경 제작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물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HANS INDIA'에 따르면 유물은 가로 1.4m · 세로 0.5m 크기 석판 2장으로, 다르마 차크라(법륜)를 경배하는 내용이 조각됐다.

인도고고학조사단 소속 무니랏남 레디 박사와 불교학자 겸 '비자야와다 & 아마라바티 문화센터' 대표이사 시바나지 레디 박사는 "팔나두(인도 남서부) 지역 석회암을 재료로 쓰고, 아마라바티 미술사조가 반영된 조각 내용으로 보아 기원후 1세기 경 작품으로 추정한다"며 "프라카삼 지역이 사타바하나(Satavahanas) 왕조에 지배당할 당시 농익은 아마라바티 미술사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디 박사는 "석판은 안드라프라데쉬 주 내 성지 싱가라콘다 언덕의 찬다바람 마을 불탑서 떨어져 나온 것"이라며 석판의 용도가 탑 재료인 벽돌을 감싸는 장식용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라바티는 큰 불탑을 중심으로 한 불교건축 유적으로, 그 주위에 돌린 대리석 울타리 난순(欄楯) 등이 널리 알려졌다.

난순에는 '아마라바티 양식'으로 불리는 아름다운 부조(浮彫)가 있는데, 주로 대탑을 묘사한 그림이 많아 건축사서도 주목된다.



지난 11월 24일 프라카삼 주 베남팔리 마을 근처 군드라캄마 강둑서 기원후 1세기 경 제작으로 추정되는 불교 유물이 발견돼 화제다. 사진출처=HANS INDIA

한편 레디 박사는 석판이 찬다바람 박물관에 안치 · 전시될 수 있도록 안드라프라데쉬 주 고고학 · 박물관부에 공식 요청한 상태다.

이승희 기자 lshuihappy@hyunbul.com

# 달라이라마, "도널드 트럼프 만날 것"

## 몽골 방문서 밝혀… 中, 몽골 회담 무기한 연기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18~21일 몽골을 방문한 달라이 라마는 미국 대선에 대해 질문하며 "자유진영 국가를 대표하는 나라인 미국을 방문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 도널드 트럼프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달라이 라마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대해 "걱정할 것이 없다. 트럼프 당선인이 국제 현실에 맞게 정책을 펼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거 기간 중 트럼프 후보가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인상을 받았다. 일단 당선된 후 책임이 부여된 만큼 협력해 현실에 맞게 정책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달라이 라마가 티베트 분리 독립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는 중국은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과 관련, "건전하고 지속적인 양국 관계 발전의 전체 구도 아래서" 달라이 라마의 방문을 취소하라고 몽골 측에 요구했으며, 예정돼 있던 중국-몽골 양국 정부 간 회담의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사찰의 감로수를 시걸포 정수기로 느끼세요!

시걸포는 인공적으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아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천연수로서 대자연에서 정화된 암반수와 같은 건강한 감로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탁월한 안전성
· 인체에 유/무해 성분 선별 제거
· EPA 미생물 기준(99.99%) 박테리아, 바이러스, 시스트균을 별도의 화학약품 처리없이 만족시킵니다.

세련된 디자인
작고 안정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사용자의 편의성과 미적 아름다움을 동시에 구현한 세련된 구조로 성능은 물론 주방의 컨셉과 스타일리쉬한 인테리어로도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독보적 기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선진 정화 기술로서 음용수만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시걸포의 독자기술로 개발된 스트럭처드 매트릭스[Structured Matrix]를 채용하여 완전히 새롭게 개발한 정수기입니다.

엄격한 검증
세계의 유수 연구기관이 인정한 안전성 및 내구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특히 미국 EPA(미국 환경청)의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유해한 미생물(바이러스, 박테리아, 원생동물)을 제거하는 장치의 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입니다.

뛰어난 물맛
물에 용해된 화학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확실하게 제거하여 천연 미네랄은 그대로 통과 시키기 때문에 언제나 안전하고 건강한 본래의 물맛으로 되돌려 줍니다.
특히 시걸포는 다도생활의 필수품으로 차의 맛과 향을 더욱 풍미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국내와 세계 67개국에서 사용되는 시걸포 정수기
· 타워팰리스 1차, 2차, 3차 / 롯데캐슬시리즈 / 건대 시니어타운 외 다수
· 일류 요리사 및 특급 호텔을 매료시킨 시걸포
· 보잉사, 대한항공, 일본항공 등 수 많은 항공사가 선택한 시걸포
· 소말리아 내전과 유엔 평화유지군 등의 구호 활동에 사용된 시걸포

판매원 현대불교현불샵 | 제조원 General Ecology, Inc. USA | 한국총판 (주)이앤알인터내셔널

문의 080-866-1080
상담 후 카다록을 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